



의정부주보

• 발행인 손희승 • 편집 홍보국 • 주소 11674 경기도 의정부시 신희로 261 의정부교구청 • 전화 031-850-1400(대표), 1433-5(홍보국)

103위 성인

성 김성우 안토니오 (1794-1841)

경기도 광주 구산(龜山)에서 부유한 가정의 장남으로 태어난 김성우는 성품이 강직하고 도량이 넓어 많은 이에게 존경을 받았다. 천주교를 접한 뒤 곧바로 두 동생과 함께 입교하였고, 열렬한 신앙심으로 전교 활동을 펼쳐 자신이 사는 마을을 교우촌으로 만들었다. 부모가 세상을 떠나자 세례를 받고 서울로 이사한 뒤엔 자기 집을 공소로 삼아 신부들을 도왔다.

기해박해가 일어났을 때, 밀고를 받은 김성우는 미리 피신하였으나 고향에 남아 있던 두 동생은 체포되었다. 하지만 이듬해 1월 그 역시 체포되었는데, 그때 감옥에서도 전교하여 2명의 죄수를 신앙의 길로 인도하였다. 마침내 옥살이 15개월 만인 1841년 4월 28일 치도곤 60대를 맞은 그는, 이튿날 29일 교수형을 받아 47세의 나이로 순교하였다.

성화 박득순 작, 「한국 103위 순교 성인화 특별전」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4



연중 제13주일 · 교황 주일

소리 주보 ▶



입당송 시편 47(46),2

모든 민족들아, 손뼉을 쳐라. 기뻐 소리치며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제1독서 지혜 1,13-15; 2,23-24

화답송 시편 30(29),2와 4,5-6,11-12과 13ㄴ(◎2ㄴ 참조)

◎ 주님, 저를 구하셨으니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 주님,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당신은 저를 구하시어, 원수들이 저를 보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주님, 당신이 제 목숨 저승에서 건지시고, 구렁에 떨어지지 않게 살리셨나이다. ◎

○ 주님께 충실한 이들아,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 거룩하신 그 이름 찬송하여라. 그분의 진노는 잠시뿐이나, 그분의 호의는 한평생이니, 울음으로 한밤을 지새워도, 기쁨으로 아침을 맞이하리라. ◎

○ “들으소서,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저의 구원자 되어 주소서.” 당신은 저의 비탄을 춤으로 바꾸시니, 주 하느님, 영원히 당신을 찬송하오리다. ◎

제2독서 2코린 8,7.9.13-15

복음 환호송 2티모 1,10 참조

◎ 알렐루야.

○ 우리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음을 없애시고 복음으로 생명을 환히 보여 주셨네. ◎

복음 마르 5,21-43 <또는 5,21-24.35ㄴ-43>

영성체송 시편 103(102),1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내 안의 모든 것도 거룩하신 그 이름 찬미하여라.

카파르나움



카파르나움 회당

갈릴래아 호수의 북쪽에는 카파르나움 유적지가 자리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당시 거점으로 삼으신 마을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크파르 나훔] 곧 '위로의 마을'이라는 뜻인데, '나훔의 마을'이라는 의미로도 풀이됩니다. 따라서 열두 소예언자 가운데 하나인 나훔과 관계 있다는 설도 있지만, 나훔의 고향으로 소개되는 "엘코스"(나훔 1,1)의 위치는 아직까지 수수께끼입니다.

예수님의 유년기 고향은 나자렛이지만, 공생활을 시작하신 뒤에는 카파르나움이 '주님께서 사신 고을'(마태 9,1)로 여겨졌습니다. 현재 유적지 입구에도 '예수님의 고향'이라는 안내판이 붙어 있습니다. 다만 "여우들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를 기댈 곳조차 없다."(마태 8,20) 하신 걸로 보아 거처는 따로 없이 베드로의 집에서 지내신 듯합니다. 베드로가 장모와 함께 살았을 집(17,25)이 카파르나움에서 발굴되었는데, 현재는 그 위로 배 모양의 성당이 봉헌되어 있습니다. 물고기 낚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불림 받은 베드로의 소명을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장모는, 고기잡이를 하며 잘 살던 사위가 갑자기 누군가에게 홀려 가정에 소홀히 한다고 화병이 났던 모양입니다. 열병처럼 타오르는 이 화병은, 베드로와 함께 오신 예수님을 만난 뒤 비로소 해소된 듯합니다(8,14-15). 이후 베드로의 집은 최초의 '가정 성당'(domus ecclesia)이 되었고, 로마 시대 탄압받던 이들은 이곳에 모여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카파르나움은 '예수님의 고향'답게 기적이 많이 일어난 곳입니다. 망령 들린 자, 중풍병자 등이 치유 받았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서는 [탈리타 쿠미]라는 말씀 한 마디로 소녀를 일으켜 주셨습니다(마르 5,35-43). 이 말은 아람어로서 "소녀야, 일어나라."라는 뜻입니다. 루카 7,2-5에 따르면, 카파르나움의 회당은 신심 깊은 어느 이방인 백인대장의 도움으로 지어진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생명의 빵에 관한 말씀도 해주셨습니다(요한 6,22-59). 이후 그 백인대장은 자신이 아끼던 노예가 병들자 예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지금도 미사 때 바쳐지는 그 유명한 청원입니다: "주님, ... 그저 말씀만 하시어 제 종이 낮게 해 주십시오"(루카 7,6-7).

카파르나움은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오를 부르신 곳이기도 한데요(마태 9,9), 당시 카파르나움은 '해변길'(Via Maris)이라고 하는 국제 도로가 지나가는 마을이었습니다. 이사 8,23에 언급된 "바다로 가는 길"이 마을을 통과하였으니 카파르나움에선 세금 거둬 일도 많았을 테고, 그래서 많은 세리가 활동했을 것입니다. 이 해변길 덕분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말씀도 다른 지방으로 쉽게 퍼져 나갔을 테고요. 그래서 마태 4,13-17에 나오듯 "바다로 가는 길... 이 민족들의 갈릴래아, 어둠 속에 앉아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게 되었으니, 과연 '위로의 마을'이란 뜻의 카파르나움은 '예수님의 고향'으로 손색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

「모든 형제들」 프란치스코 교황의 복음화 사명 이행
- 평화 증진과 세계 공동체 건설



주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마태 28,20)하려는
프란치스코의 「모든 형제들」

사회 현안을 보기, 복음과 전승, 이성과 경험으로 판단하기
빛과 누룩으로 행동하기

제3장 열린 세계를 구상(構想)하고 싹트게 하기 ⑥ - 도덕적 선(善)을 들어 높이기, 연대의 가치

회칙 「모든 형제들」은 보편적 인간 존엄과 존엄한 삶의 권리 그리고 온전한 발전의 권리를 강조하면서 모든 권리가 더 위대한 선, 곧 공동선을 위한 연대로 조화롭게 질서 잡혀야 함을 제안합니다. 공동선은 “사회 집단이든 그 개별 구성원들이든 자기완성을 더욱 충분하고 편리하게 추구하도록 하는 사회생활 조건들의 총화”(사목헌장 26항)를 말합니다. 공동선 실현을 위한 노력에는 사회 자체와 다른 이들의 온전한 발전을 촉진하는 도덕적·정신적 가치, 특히 선(善)의 증진이 포함됩니다.

회칙은 열린 세계를 구상하는 데 필요한 다섯째 조건으로 선과 연대(連帶, solidarity)의 증진과 전수를 제안합니다(112-117항). “도덕적 선”으로 번역되는 그리스어 [아가토쉬네] (agathosyne)와 라틴어 [베네볼렌시아] (benevolentia)는 선을 향한 애착과 추구의 태도, 다른 이의 선을 바라는 태도, 아름답고 숭고하며 유익한 것으로 다른 이의 삶을 채우려는 바람입니다. 회칙은 ‘이기심, 폭력, 부패, 무관심, 개별 이해관계들의 생활’ 대신 ‘선을 들어 높이는 생활’을 회복하고 고상한 가치들을 전수(傳受)하여 참되고 온전한 발전을 향해 함께 나아가고 연대하자고 호소합니다.

연대는 단순히 뜻이 같은 사람들이 결합하거나(101-102항 참조) “사람들의 불행을 보고서 막연한 동정심이나 피상적인 근심을 느끼는 무엇이 아니라, 공동선에 투신하겠다는

강력하고도 항구적인 결의(solidity, 단단함)입니다”(「간추린 사회교리」 193항). 이와 관련하여, 회칙은 특별히 교육과 양성의 의무가 있는 가족, 교사, 언론 종사자들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연대는 구체적인 복무(服務, 봉사, service)로 나타나며, 그 복무는 다른 이들을 돌보려는 노력에 있어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복무는 취약함, 우리 가족·사회·국민 가운데 취약한 구성원들을 돌본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복무하면서 사람들은 가장 취약한 이들의 구체적인 시선 앞에서, 자신만의 바람과 염원과 권력 추구를 제쳐두는 법을 익힙니다. 복무는 언제나 취약한 구성원들의 얼굴을 지켜보고 살을 만지고 밀착을 느끼며,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그 밀착을 ‘견디면서’ 그들을 도우려는 것입니다. 복무는 절대로 이념적이지 않습니다”(115항).

“연대는 공동체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대는 모든 이의 삶이 소수에 의한 재화의 할당(割當)보다 우선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연대는 빈곤과 불평등의 구조적 원인, 일자리·땅·주택의 부족, 사회권과 노동권의 부정(否定)을 상대로 항쟁하는 것까지 의미합니다. 연대는 돈의 제국이 휘두른 파괴적 영향들에 맞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심오한 그 의미로 이해할 때, 연대는 역사를 만들어 가는 방식 가운데 하나입니다”(116항). 🌐

방은 따뜻한가요, 밥은 먹었나요?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습니다. 반면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아 좋았던 관계가 깨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저와 남편은 종종 말다툼을 합니다. 서로의 성향이나 생각 그리고 말투와 언어 표현법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부부간 소통에 어려움이 많아 상담을 받기도 했습니다. 좀 달라진 것 같기도 합니다. 보통 대화의 어려움을 가장 많이 겪는 대상이 바로 가족입니다. 늘 함께 지내다 보니 밖에서는 안 그러는데 가족에겐 함부로 하게 된다는 거죠. 편안한 마음에 이물 없이 한 말이라는데, 결국엔 상처가 되어 마음의 문을 닫게 됩니다.

저는 가끔 남편에게 이런 요구를 합니다. “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 당신 생각을 말하기 전에 먼저 내 말의 끝을 물어서 질문을 해줘. 예를 들어 ‘당신 밥 먹었어?’ 하고 물으면 ‘지금 시간이 몇 신데 밥을 안 먹어?’라고 통명스럽게 대답하지 말고, ‘동료들이랑 같이 갈치 조림 맛있게 먹었어. 당신은?’ 이렇게 부드럽게 말해줘.” 이왕이면 상대의 마음을 읽어주는 공감적 대화를 하자는 프로포즈입니다. 남편이 의외로 긍정적인 반응을 해준 덕에, 저는 그다음 대화를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남편은 제가 원하는 말투로 계속 대화를 이어갔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건강한 대화를 위한 저희 부부의 노력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말도 습관이라는데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디서 미운 말만 배워온 것처럼 못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로 사람을 무시하고 화나게 하면서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자신은 좋은 말만 듣고 싶어 하고, 누가 거슬리는 말

을 하면 못 견뎌 합니다. 그렇다 보니 위로하는 말 한마디조차 쉽게 할 수 없습니다. 경찰사목위원회에서 선교사와 표현예술 상담사 자격으로 경찰서 유치장을 방문했었습니다. 유치인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의 말을 해주는 봉사였습니다. 입실 전 먼저 기도를 한 다음, 오늘은 어떤 말로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남성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얼굴은 사색이 되고 온몸이 굳은 듯 힘겨워 보였습니다. 잠시 고심을 하다가 손을 넣어 방바닥을 짚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형제님, 앉은 자리는 따뜻하세요?” 순간 긴장된 눈빛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커피를 건네며 “식사는 하셨는지요. 밥이 잘 넘어가지가 않죠? 왜 안 그러시겠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고개를 뒤로 젖히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혼자서 말도 못하고 억눌러놓은 불안과 두려움의 감정이 건드려졌나 봅니다.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기다렸습니다. 맘껏 울어도 괜찮다고, 마음이 진정될 때까지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많은 말이 있어야 위로가 될까요. 뭔가 거창하고 특별한 말을 해야만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사연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분에게 필요했던 건 곁에 함께 있어 주는 것 그리고 두려운 마음을 공감해 주는 것, 이런 게 아니었을까요. 짧은 한마디, ‘방은 따뜻한가요, 밥은 먹었나요?’라는 말에 우리는 마음의 짐을 덜고 위로를 받곤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언제나 근사하고 멋진 말을 해야 한다고 착각하며, 내가 하고 싶어 하는 말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작 필요한 말은 상대가 듣고 싶어 하는 작은 한마디 말일 텐데 말이죠. 🍵



교구 소식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일시 7/5(금) 15시

장소 주교좌 의정부 성당

고3·일반 예비신학생 모임

일시 7/7(주일) 13:30

장소 의정부교구청 5층 경당

※ 7, 8, 9월 중등부 예비신학생 모임은 없습니다. (9월은 추석 연휴로 없음)

가정기도 <감사> 제4기 신청

30~40대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90일 기도 프로그램

기간 8/3(토)~10/31(목) [90일]

대상 30~40대 기혼자 (부부 또는 개인)

회비 1만원 (가정기도 감사 노트 제공)

접수 7/20(토)까지

문의 031-850-1448 가정사목부

신청 ▶



의정부교구 신앙의 길 제13기 순례단 모집

순례일정 9/21~11/9, 매주(토) [8구간, 약 103Km]

사전모임 9/7(토) 14시, 양주순교성지

인원 103명 (누구나-교구 신자 우선)

참가비 10만원 (청년 50% 지원)

신청 교구 홈페이지 또는 순교자공경회 다음 카페에서 참가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cujbmhs@hanmail.net

접수 7/17(월)까지 (선착순, 참가비 입금 순)

문의 031-850-1498 순교자공경위원회

청소년사목국 통합 카카오톡채널 오픈

새롭게 단장한 청소년사목국 카카오톡채널로 초대합니다.

오픈이벤트 참여하고 선물 받아주세요!

채널 ▶



※ 기존 UJB어린이사목부 · UJB청소년사목부 · UJB청년사목부 채널은 운영이 종료됩니다.

[전시] 의정부가톨릭미술가회 신입회원전

일시 7/6(토)~26(금) 10:30~17:30 (매주 월요일 휴무)

장소 갤러리 평화 (의정부시 시민로 35번길 36)

문의 031-877-9153 / 카카오톡 @g_pyeongwha



 **미사 · 피정 ▶▶**

8지구 영성피정

일시: 7/2(화) 12:30~16시
장소: 금촌2동 성당
강사: 김재덕 베드로 사제
문의: 010-9239-8026

의정부교구 성령쇄신 금요일 기도회

일시: 7/5(금) 21시~24:30
장소: 마두동 성당 대성전
주제: 성체 현시와 함께하는 기도회
강사: 김영철 신부 (교구담당 및 4지구장)
문의: 010-2127-0032

첫토요 신심 미사

일시: 7/6(토) 09:20~12시 [10시 미사]
장소: 일산 성당 (일산서구 원일로 57)
문의: 010-6303-8515 파티마의 세계사도직

가정선교회 7월 피정 및 미사

성가정 영성 피정: 7/3(수) 박재찬 신부, 이현주 회장
토요피정과 성모신심 첫토요 미사: 7/6(토)
김종섭 신부, 이현주 회장
치유·회복을 위한 찬양 피정: 7/20(토)
박학민 신부 / 찬양: 고영민 부회장 외 8명
시간: 12:30~17시 / 장소: 가톨릭회관 3층 강당
문의: 0505-091-0523, 02-777-1773
서울대교구 가정선교회

성심수녀회 여름청년 침묵피정

일시: 7/19(금) 20시 ~ 21(주일) 13시
장소: 성심수녀회 예수마음배움터(파주)
주제: "저희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대상: 청년 남녀 누구나
회비: 65,000원
문의: 010-9099-2337

성 도미니코 선교 수녀회 피정

하느님, 바람, 나(힐링피정): 7/5(금)~7(주일)
효소단식: 7/11(목)~14(주일), 8/9(금)~12(월)
성경완독: 7/26(금)~8/3(토), 8/23(금)~31(토)
문의: 010-3340-0201 황성 도미니코피정의집

지혜의 샘 7월 피정 프로그램

여름 성가정 피정: 7/8(월) 10시~17:30
강사: 정병덕 신부, 서인석 신부, 한영임 회장
치유 대피정: 7/22(월) 10시~17:30
강사: 김성기 신부, 이창진 신부, 한영임 회장
감사 찬양 피정: 7/31(수) 10시~17:30
강사: 김성대 신부, 한덕훈 신부, 한영임 회장
장소: 부천시 경인로 61-1 지혜의샘 5층
문의: 010-3248-9705

예수성심전교수도회 신심 미사

일시: 7/5(금) 16시(성시간 15시), 19:30(성시간 18:30)
장소: 예수성심전교수도회 본원 (덕양구 삼막2길16)
문의: 02-379-8091, 010-6311-8071(신청 필수)

매월 첫화요일 오후 피정 - 토당동 마리아니스트센터

예수님의 은총과 성모님의 도우심으로
치유와 회복의 시간
일시: 7/2(화) 14시~16:30 (8월은 쉽니다.)
장소: 마리아니스트 센터 (덕양구 호수로 76-13)
강사: 장희성 신부(마리아니스트센터 관장)
내용: 묵주기도, 성체조배, 영성강의, 미사, 안수
문의: 010-9585-6283 (무료)

한티 가는 길

5차: 9/25(수)~27(금), 6차: 10/10(목)~12(토)
7차: 11/25(월)~27(수)
장소: 왜관 피정의 집
회비: 25만원, 대구은행 504-10-102896-6
(재)왜관성베네딕도수도원
문의: 010-6791-0071

렉시오 디비나 피정

1일 피정: 7/6(토) 14시~17시 (무료)
렉시오 디비나와 첫토요 신심미사
4박5일 피정: 7/17(수) 16시 ~ 21(주일) 13시
회비: 30만원
장소: 양주 올리베따노 성 베네딕도 수도원
문의: 010-5230-2986
cafe.naver.com/monteoliveto

예수고난회 서울명상의집 피정

개방의날 무료피정: 7/5(금) 매월 첫(금) 10시~15:30
수요개방미사: 매주(수) 15시
대침묵피정: 8/16(금)~18(주일)
다네이영성수련피정: 8/22(목)~25(일)
문의: 02-990-1004 예수고난회 서울명상의 집

메주고리에 기도 일일피정

메주고리에 찬양기도, 성시간, 미사안수(중식무료)
일시: 7/1(월) 10시~16시
장소: 삼성산 피정의 집 대강당
문의: 02-874-6346
삼성산성령수녀회, 사랑의성령봉사회

 **교육 · 모집 ▶▶**

중증장애인거주시설 해밀 직원채용

분야: 생활재활교사(여) ○명, 채용시까지
자격: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문의: 031-965-0028 해밀
※ 자세한 사항은 www.haamil.or.kr 참조

기도 장소 대관

대상: 개인 및 소그룹 (6명 이내)
장소: 예수마음선교수녀회 (여주시 신단2길 109-13)
여주전철역→자가용 10분 소요
시설: 경당, 개인 침실 6개, 거실 및 주방
기타: 식사(직접취사)
문의: 031-885-5015 예수마음선교수녀회

하반기 교회음악가 자격증 과정 모집

서울대교구장 인준의 전문 중급 교회음악가
자격증 수여
대상: 음대 졸업자(2년제 포함) 및 본 아카데미 실기
전문과정 중급 이상의 실기 능력을 가진 자
교육: 이론과목 수강 및 연주를 위한 실기레슨,
토요 미사를 통한 실제 전례중심 교육
장소: 최양업홀(1·4호선 서울역, 2·5호선 충정로역)
접수: 7/8(월)~26(금) ※ 전화문의 요망
문의: 02-393-2213~5, www.casm.co.kr

파주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 '도란도란' 이용자 모집

대상: 만 18세 이상, 지적·자폐성 발달 장애인
(파주, 고양, 서울시 순으로 송영서비스 가능)
문의: 031-942-8000, cafe.naver.com/pjdoran

성가발성 노래교실

CPBC <다함께 성가들> 이호중 교수 직강
시스띠나 음악원: 일산(금) 11시, 문산(토) 18시
문의: 010-9842-8818

미사반주 및 묵상곡을 위한 오르간교육

날짜: 7/1(월~토)부터 10주
주최: 아퀴나스오르간연구소
문의: 02-338-3793

2024가톨릭 성가대 코랄콘서트 예선 접수

대상: 전국 성당 성가대
예선: 가톨릭성가책 1곡 / 음원 접수: 8/12까지
본선: 11월 / 주최: 서울대교구성음악위원회
문의: 010-5245-2848 사무국장 심준보 베드로

대건카리타스-조이빌리지(중증발달장애인가주시설)직원 모집

분야: 사회복지사(교대근무) - 만 60세 이하
주소: 파주시 광탄면 심궁로 76-25
문의: 031-947-2720

한마음청소년수련원 여름캠프 보조지도자 모집

업무: 어린이신앙캠프 보조 진행
문의: 031-840-0018 활동운영팀
※ 자세한 사항은 hanmaum84.com 참조

우니마스 청소년·성인 오케스트라 단원 모집

연습: 성인 매월 1,3주 / 청소년 매월 2,4주
장소: 원흥동 성당
문의: 010-2736-5727, 010-5031-3475

안내 · 기타 ▶▶

한마음청소년수련원 야외수영장 개장

주말개장: 7/13(토)부터 매주 토·주일

완전개장: 7/22(월)~8/18(주일)

(개인 및 단체 하루이용 가능)

입장료: 15,000원 (그늘막 무료)

문의: 031-840-0018

※ 자세한 사항은 hanmaum84.com 참조

가톨릭신문 성지순례

9/21(토)~26(목) 베트남, 마카오 (172만원)

10/10(목)~19(토) 서부지중해 크루즈 (539만원)

10/15(화)~26(토) 산티아고 도보순례 (480만원)

문의: 02-2281-9070 가톨릭신문 투어

(소규모 양로원) 우양의 집 물품 판매

프란치스코전교봉사수녀회 운영 양로원 기금

가격: 청국장(500g) 1만원, 연잎밥 1만원 (택배 가능)

문의: 031-943-2120, 010-9271-4694

2024 모여라 가톨릭 영상 공모전

주제: 신앙캠프 뭐하니?

(여름 신앙학교와 관련된 자유 영상)

자격: 본당, 단체, 수도회, 세례받은 신자 누구나

접수: <https://mocatolic.or.kr>

신청서 작성 후 영상 등록

기간: 8/1(목)~9/1(주일)

문의: 031-8019-5403 수원교구 모여라가톨릭팀

2024 살레시오 여름 성소캠프

8/10(토)~11(주일) 중1~고2 건강한 남학생

8/17(토)~18(주일) 고3~35세이하 건강한 미혼남성

장소: 대전 살레시오 교육사목센터

접수: 7/28(주일)까지

문의: 010-6221-3520

한 여름밤의 꿈 3

<모두 함께하는 힐링의 행복한 추억 담기>

유럽에서 수학한 성악가 외 다수 출연

성가, 가곡, 팝송, 포크송, 트로트 등

일시: 7/5(금) 19:30

장소: 호평동 성당 대성전 (무료)

문의: 031-592-2554 (예비자 및 냉담자 환영)

예수회 후원회 성지순례

8/6(화) 일본 나가사키 순교성지 (4일, 145만원)

9/26(목) 조지아, 아르메니아(초기교회) (10일, 440만원)

10/9(수) 튀르키예, 그리스 (12일, 470만원)

10/22(화) 일본 나가사키 순교성지 (4일, 130만원)

11/4(월) 알프스 주변 수도원 및 성모성지 (12일, 530만원)

문의: 02-722-8366 크로바여행사

가톨릭여행사 해외 성지순례

9/24 이탈리아 일주 (11일, 545만원, 동반자 할인)

10/7 유럽 4개국 성모님 3대 발현지 (13일)

10/14 튀르키예, 그리스 (12일 485만원)

10/23 발칸3개국 메추고리에 (12일)

11/21 멕시코 과달루페 (10일)

문의: 010-5235-3533 가톨릭회관 619호

꼬메스심리상담소 - 도미니쿠수도회

상담을 통한 치유와 성장이 있는 따뜻한 동행

내용: 가족, 부부, 갈등, 심리, 영적성장

방법: 대면, 온라인, 전화 모두 가능 (주1회)

상담: 010-3201-0520 노경덕 신부

가톨릭여성심리상담소

심리, 가족갈등 전화상담

일시: (월~금) 10시~16시 / 상담: 02-990-9366

천주교 인천교구 운영 "봉안당" 접수

위치: 인천 서구 당하동 산152-1 백석묘지 내

준공: 하늘의문 성당 2025년 상반기 준공(예정)

접수: 인천교구청 방문 및 온라인 위치 선정

서류: 교적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봉안: 60년 (30년, 추가30년 가능)

봉헌금: 400만원, 500만원

접수: 032-765-7251, haneul.caincheon.or.kr

라파엘여행사 성지순례

9/11(수) 추석특선 알프스와 중세수도원 (545만원)

9/23(월), 11/18(월) 베트남 다낭 (5일, 155만원)

10/13(주일) 성모님 3대 발현지(13일, 485만원)

10/22(화) 이탈리아 일주 (10일, 520만원)

11/18(월) 스페인, 포르투갈 (12일, 449만원)

2025년 1/6(월) 멕시코 과달루페 (10일)

문의: 02-778-8565 라파엘여행사

산티아고 순례길 800KM - 4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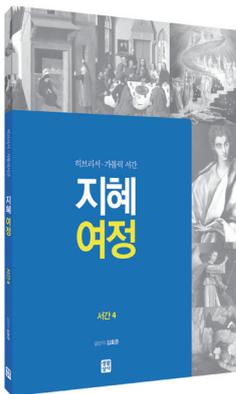
출발: 9/19(목) / 회비: 599만원 (+2,000유로)

가톨릭 트래블 - 루르드, 파티마 포함

문의: 070-4086-0207, catravel.co.kr

DIocese of Uijeongbu

도/서/소/개



히브리서 · 가톨릭 서간

지혜 여정 서간 4

김효준 | 생활성서 | 160면 | 15,000원

문의 | 02-945-5984 생활성서

2천 년 전 교회의 모습에 나의 신앙을 비추어 보다

『지혜 여정 서간4(히브리서·가톨릭 서간)』는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서간과 일곱 통의 가톨릭 서간, 즉 신약 성경에서 바오로 서간 범주에 든 성경을 제외한 모든 편지를 체계적이고 심도 있게 공부할 수 있는 성경 공부 교재다.

예수님 시대 이후, 가톨릭 교회는 파란만장한 운명을 겪으면서도 오늘날까지 그 가르침과 전통을 부단히 이어오고 있다. 이는 하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신학적 반성을 통한 성찰과 쇄신

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히브리서와 가톨릭 서간은 당시 교회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에 신속하게 대처하면서 신자들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격려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씌어졌다. 교회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그리스도인 개개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와 직결된다. 『지혜 여정 서간4(히브리서·가톨릭 서간)』는 히브리서와 가톨릭 서간의 핵심을 명확히 파악하여 우리에게 감 없이 전달해 준다.

사도 베드로의 후계자, 교황

오늘은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하느님 백성에게 봉사하는 교황님을 위해 기도하고 그분을 통한 일치를 도모하고자 정한 교황 주일입니다. 한국 천주교회는 1930년경부터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 다음에 오는 주일을 교황 주일로 지냈는데, 현재는 6월 29일 대축일에 가까운 주일로 정해 지내고 있습니다.

교황을 가리키는 라틴어 'Papa'는 본래 주교나 대수도원장 또는 총대주교 등 지역 교회의 최고 장상을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다 8세기 이후 차츰 교황에게만 사용되기 시작했고, 그레고리오 7세(1073~1085년 재위) 때부터는 교황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되었습니다. 「교황청 연감」(Annuario Pontificio)에서는 교황을 '로마의 주교' '그리스도의 대리자' '사도 베드로의 후계자' '서방 교회의 최고 사제' '총대주교' '이탈리아의 수석 대주교' '바티칸 시국의 원수'로 표현합니다.

교황은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단의 으뜸으로 세운 사도 베드로의 후계자입니다. 주님 승천과 성령 강림 이후, 베드로는 교회 공동체의 대표로서 하느님 백성을 이끌었습니다. 역사의 증언에 의하면, 그는 42~43년 로마에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세웠고 그곳에서 자신의 첫 번째 편지를 썼으며(1베도 5,13 참조) 네로 황제의 박해 때인 64년 순교하였습니다. 이후, 그의 후계자인 로마의 주교는 베드로의 권위와 책임을 계승하는 이로 인정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제266대 교황입니다.



교황은 그리스도의 직무를 이어받아 예언직과 사제직과 왕직을 수행하며 그에 따라 교도권(教導權), 신품권(神品權), 통치권(統治權)을 갖습니다. 그중 교도권과 관련하여, 교황은 가르침에 있어 '무류권'(無謬權)을 갖습니다. 이는 교황이 전체 교회의 최고 목자로서 신앙과 도덕에 관한 최종 결정을 사도좌에서(Ex cathedra) 공식적으로 선언하면 그 내용에 오류가 없다는 말입니다. 단, 여기서 개별 교구장이나 개인 학자의 자격으로 주장하는 것에까지 오류가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늘 교황 주일을 맞이하여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모든 신앙인의 믿음을 굳건히 하고 일치의 토대가 되어 전 세계 교회를 하느님 나라로 이끄실 수 있게 그분께 필요한 힘과 용기를 내려 주십사 기도드리도록 합시다. ☪